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과거, 현재, 미래

여진구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회장/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1.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흐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환경교육은 당면한 환경과제를 극복하는 수준과 원론에서 맴도는 반복형 일회적인 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제21의 실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국적인 연대와 정보교류를 통해 모범사례가 응용되고 적용되는 모색기임이 분명하다. 다만 지역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지속성이 부족하여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단계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경험이 축적됨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환경교육의 기반과 지도자의 양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환경교육은 안정적으로 다양한 창조적인 시도와 적용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에는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은 산발적으로 흉내 내기 단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우수한 사례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인 문화와 역사, 인재의 구성, 환경교육의 여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충분히 검토되고 적용되기 보다는 외국의 경험과 다른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확산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나 교육적 의미와 철학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부각된 프로그램을 유행처럼 선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그 효과와 중요성에 비교해 볼 때 수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내용이 축적되어 확산되거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서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지나치게 굴곡이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997년부터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기구가 상설화되어 파트너십에 의한 실천프로그램이 공모사업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학습은 본격적인 시도를 하기 이르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지역중심의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교육과 환경교육지도자 양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재원조달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가치이해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공적자금이 갖는 전근대적인 예산편성 방식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환경교육기회를 박탈한다. 예산편성이 지역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제21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교육, 지속가능한 소비, 폐기물의 감량,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지방의제21 교육을 비롯한 생태 및 환경교육, 하천살기를 위한 교육과 실천, 작은 산 살리기 운동, 생태교육지도자 양성, 대기오염절감을 위한 실천교육 등 수많은 지역사회 환경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 지방의제21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라운드 워크(Ground Work)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 기업, 행정이 파트너십을 이뤄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현장(Ground)에서의 창조활동(Work)이다. 이 운동은 명칭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각자의 거주 또는 활동지역에서 기초적이며 구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째,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환경보전문제는 주민, 기업, 정부 3자가 자칫 대립관계에 서기 일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자원(인재, 자연, 자원, 기술 등)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종래의 관례이다. 주민은 수혜자의 위치에서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과제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며 실천에 옮기고 동시에 행정과 기업에 제안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환경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보호', '유지'하던 관행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라운드 워크에서 의도하고 있는 협력관계에서 3자가 각기 얻게 되는 혜택은 첫째, 주민의 경우 ① 지역의 환경개선 ② 지역사회의 결속 ③ 삶의 질 향상 ④ 성과에 대한 성취감 ⑤ 과제에 대한 재정과 기술지원 ⑥ 자기 실천능력의 향상 ⑦ 지역주민의 환경교육 ⑧ 자기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다.

둘째 기업의 경우 ① 기업 이미지 향상 ② 지역사회에 기여 ③ 기업시설의 환경개선 ④ 네트워크의 확대 ⑤ 업적 향상과 인재확보 ⑥ 노는 땅의 유효이용(공장부지의녹화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⑦ 사업 확장 도모다.

셋째 정부의 경우 ① 환경행정의 획기적 발전 ② 지역경제활동의 활성화 ③ 기금조성의 가능성 ④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⑤ 자치제의 이미지 개선 ⑥ 자체제의 인지도 제고 ⑦ 쾌적한 지역 만들기 ⑧ 행정요원의 자질향상 등이다.

그라운드 워크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지역적 해결 방법이다.

3.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방의제21

현재 세계의 곳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을 쾌적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환경공동체 건설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운동의 청사진이 바로 지방의제21이다.

지방의제21은 그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실천까지의 전 과정이 필히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민간단체와 주민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전지구적 과제이자 지역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다.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어떤 도시는 환경도시 또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어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방차원에서의 환경보전활동에 있어 빠뜨려서는 안될 요소가 시민참여이고 참여자간의 파트너십이다.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전 부서를 망라하는 공무원과 주민, 시민단체의 상당한 용기와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의 파트너십 관계의 질적 여하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실천전략의 핵심은 지방자체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판가름된다. 협의절차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지방의제21의 실천가능성은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공적일 수 없다. 공동 협력적 주민참여는 자치단체나 주민 중 어느 한쪽이 중심이 되고 다른 한쪽이 반응하거나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양자가 공동의 책임하에서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를 주민들과 공동협력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해결과 갈등 해소의 수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형태는 행정 중심적 참여, 공동 협력적 참여, 자생 조직적 참여로 분류되거나 개방정부형 참여, 정보수집형 참여, 근린정부형 참여, 공동생산형 참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떤 분류방식을 따르든 하더라도 주민참여는 그 범위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동 협력적 주민참여를 충분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주민의 행정참여라는 용어자체가 어색하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모색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지방의제 21의 이해와 작성, 실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실천의 구체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물질적이며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잃었으며 지역적인 삶과 문화의 토대를 붕괴시켜 지역 주민들의 공

동체적 삶을 파괴시켰다.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익명성, 소속감부족, 고향의식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공동체 사회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행정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행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새로운 시도로서 관 주도의 행정관행에 젖어있는 관료에게 있어서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에게 있어서나 생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정착시켜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행정관례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시대의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환경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그들 상호간의 협동심과 인내심으로 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따르든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와 굳건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제21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환경선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훈련되어 개선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기회의 제공이 될 것이다.

4.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했다. 의제21가운데 '의제21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활동'이라는 제목(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제21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력은 목표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하부조직들은 건설·운영·유지하며, 계획과정을 감독하고, 지방환경정책과 법규를 제정하며, 중앙정부 및 광역환경정책 실행을 지원한다.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수준으로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며 협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제21의 제28조는 모든 지방정부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내부의 행동계획을 창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은 의제21에 담긴 원칙과 과제를 각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서비스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의제21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96년까지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제21의 추진 목적은 시민의 참여과정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개선 행동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주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전 행동계

확이다. 이것은 곧 쾌적한 환경의 공유자원의 관리 책임과 의무를 도시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진다는 나눔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지방의제21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의제21에 의하면 주요 그룹에는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계, 농민 등이 포함된다.

파트너십 정신에 의해 추진되는 지방의제21의 첫 과제는 주요그룹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의 구성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과 양보, 협력을 통해 구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그룹의 참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래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의 이상을 창출함
- 주요 쟁점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주요그룹들의 필요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쟁점 분석을 지지
- 다양한 그룹들의 경험과 혁신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다루기위한 행동계획 개발
-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의 공동실천을 포함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동원
-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경제적 한계에 대한 지역적 이해 증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관계 구축에는 여섯 단계의 기본적인 협의절차가 있다.

1 단계

계획실행의 범위를 결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정의한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발의 조직(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는 시민사회의 이해와 자원을 끌어내는 사전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단계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유도하며, 토론이나 연구 또는 계획의 결과를 하나의 행동계획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추진협의체를 새로이 구성한다.

3 단계

추진협의체의 합의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고유한 과제 - 우선순위의 결정, 쟁점분석, 행동계획, 실행, 평가 등 - 과제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4 단계

추진협의체와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적절한 파트너(위원)들을 확인한다.

5 단계

지방정부 권한과 실현 가능한 범위와 같은 법적 한계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 활동범위를 정한다.

6 단계

전체 계획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지역사회의 전망(이상)을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지를 확산시키고 의지의 발현을 돕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5. 서울시의 지역사회 환경교육사례

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지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서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서울의제21」 등을 통해 녹색서울을 실현하고자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활기있게 펼쳐 서울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원대상은 환경관련 대기분야, 물분야, 쓰레기처리분야, 생태분야에 대한 환경보전 및 「서울의제21」 실천사업으로서 시민실천사업, 기업실천사업, 홍보·교육활동, 환경오염감시, 자원재활용,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다.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까지 232개 단체 226개 사업에 총 34억36백만원의 지원하였다.

6.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환경교육 사례

가. 인천대공원 환경교육기반 마련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불리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에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교육은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와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 자

원의 재활용과 관련된 것,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을 위한 의식을 높이는 것 등 다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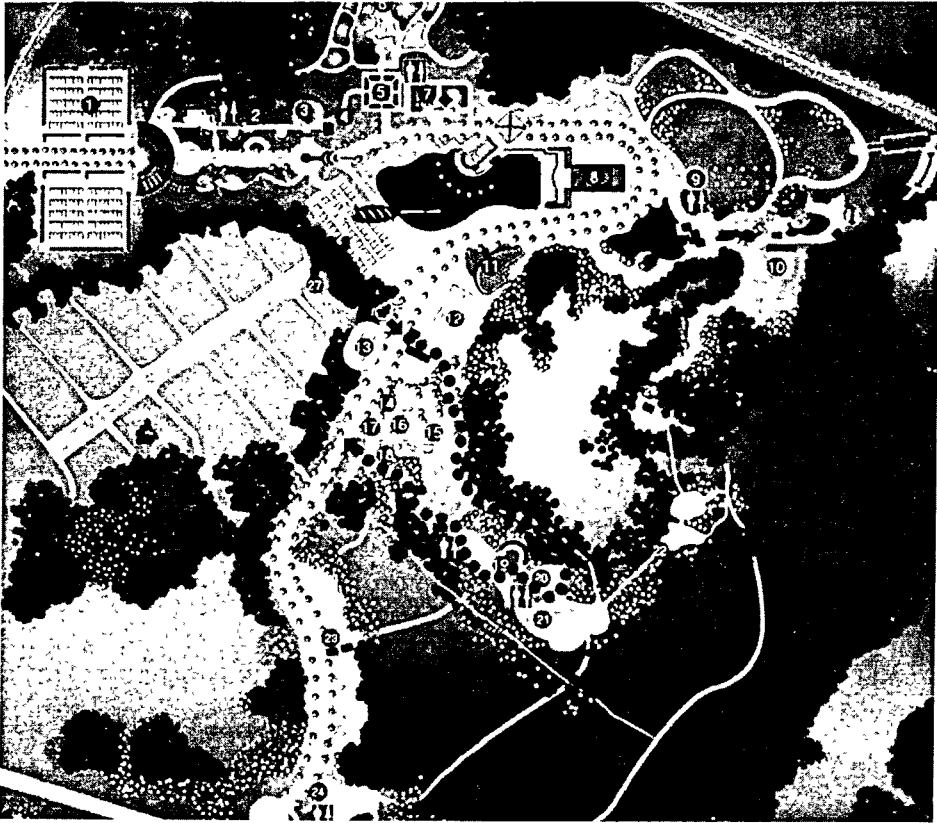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후 생물종 보전과 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이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체험을 통해 인식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즉, 자연생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이 국토의 65%이상인 상황에서는 자연교육중 산림생태교육은 자연생태교육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자연생태교육은 비교적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이나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생태공원이나 도시림 등이 대표적인 장소이다.

인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연간 약 530만명(1999년 현재)이 찾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며 관모산과 상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림과 장수천 유역, 초지, 식물원, 장미원 등은 각종 야생조류 및 곤충의 서식공간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은 인천시 육지부분 중 야생생물의 서식에 가장 적합하고 다양한 환경 및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 도시림에서의 산림생태교육 거점공간 확보와 생태교육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공원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생태계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 방법 및 내용

① 인천대공원 선정 이유

사업대상지는 인천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인천대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연간 약 530만명(99년 12월 현재)이 찾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며, 관모산과 상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림과 장수천 유역, 초지, 식물원, 장미원 등은 각종 야생조류 및 곤충의 서식공간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산림지역은 인천시 육지부분 중 야생생물의 서식에 가장 적합하고 다양한 환경 및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대공원 도시림에서의 산림생태교육 거점공간 확보와 생태교육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공원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생태계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천대공원을 본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자연학습로 위치도

② 인천대공원내 자연학습로 선정

88만평의 면적인 인천대공원에서 산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을 답사하였다. 답사 결과 백범광장 입구에서부터 산책로, 야영장 입구, 분수 연못, 계류를 지나 운동장을 통과하는 길이 탐방 코스로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정된 자연학습로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③ 인천대공원내 자연학습장 활용

인천대공원 자연학습장은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2001년 여름부터 일반인의 입장을 허용하였다. 자연학습장의 면적은 19,473m²로 주요시설은 생태연못, 관찰데크, 관찰동산, 생태하천 등이다. 자연학습장은 인천대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본 사업에서 탐방객에게 산림과 함께 다양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 사업방법 및 내용

표 1은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본 사업은 인천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대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산림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환경교육은 최근에 매우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환경교육은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생태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 대표적인 곳이 길동자연생태공원인데, 1999년에서 2000년까지 2년동안 6,000명이 넘는 탐방객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생태보전시민모임, 2000). 본 사업에서도 생태교육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 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

사업 내용		
사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산림해설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생태해설자 모집 산림생태해설자 교육 산림생태해설자 교육 완료 후 활동 제시 생태교육 및 공원관리 기초자료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 높은 산림해설(생태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교재개발 신나는 생태교실 운영 생태교실 시 교육 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현수막, 깃발 활용 등
사업결과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민에게 자연체험 기회 제공 산림보호의 중요성 인식 교육을 통한 생태계 보호기반 조성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사람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한번 내지 두 번 교육을 받는 다고 해서 일시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사업은 인천대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해 자원활동가(산림생태해설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산림생태해설을 위한 기초자원을 알기 위하여 식물, 곤충, 야생조류 등의 생물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산림생태해설을 위한 생태교실을 운영하여 탐방객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교재를 매주 만들어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2〉 세부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지속적 산림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생태해설자 모집 및 양성 교육	· 모집방법 - 기존의 자원활동가들을 인천대공원 사전 연락을 함. - 인터넷 홍보, 일간지 홍보, 현수막을 사용한 홍보
		· 교육장소 : 인천대공원 관리사무소 회의실 및 야외 · 진행방법 - 매주 일회 금요일 10시~12시까지 총 10회 진행 -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함. - 실내는 자료, 슬라이드 이용, 실외는 주제에 맞추어 진행을 함.
	산림생태해설자 교육완료 후 활동	· 모니터링 참여 · 생태공원 탐방 · 생태교실 운영 · 교육 교재제작 참여 · 생태교육 진행과정 참관
질 높은 산림해설·생태교실 운영	생물 모니터링	· 생태교육 및 공원관리 기초자료제공을 위한 생물 모니터링 · 모니터링장소 : 인천대공원내 자연관찰로 및 자연학습장 · 진행방법 - 식물의 변화 및 곤충류, 양서·파충류, 야생조류의 변화 파악. - 총 26주 진행.
	교육교재개발	-교육주제를 시작 전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결과에 맞추어 변동 함. -매주 생태교육에 맞추어 일회씩 만들 -처음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10월부터 자원활동가 참여. -총 22회 만들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 매주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교육교재 주제 선정 및 변경
생태교육 진행(인원제한 및 예약제 실시)	· 교육장소 : 인천대공원 내의 자연관찰로와 자연학습장 이용 · 모집대상 : 일반 시민 · 모집방법 - 산림조합 홈페이지(인터넷) 홍보 - 현수막을 사용한 홍보 · 예약접수 : 매주 인천산림조합 · 진행방법 -매주 토요일 3시, 3시30분 2회 진행 -1회당 참가인원 15명으로 제한 -깃발을 활용 함. -교육 평가를 위한 관찰노트 작성 -총 22회 진행	
	리플렛 제작	· 주 제 : 인천대공원을 대표하는 생물들 · 대 상 : 인천대공원을 찾는 탐방객 · 제작기간 : 모니터링이 끝나고 11월 23일까지 · 제작방법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자체적으로 제작 -26주가 진행된 모니터링 자료 활용.
교육홍보	다양한 홍보	· 산림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인천대공원 정문과 후문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 · 생태교실 진행시 '신나는 생태교실' 깃발 활용하여 탐방객의 관심 유도

나.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지역생태탐방코스 개발

1) 사업목적

○ 강서습지생태공원은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해 있는 한강수변 생태공원으로 한강하류부의 교란된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환경교육 및 하천 자연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생태공원으로 본 모임에서는 2003년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안내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강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자연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할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이용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역 거점의 생태탐방코스 및 다양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지역임

○ 따라서 본 모임은, 지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지역생태탐방코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지역주민 참여의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생태탐방코스를 조사·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지역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런 과정과 활동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생태탐방코스를 생태축 개념으로 보전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함

2) 추진결과

① 생태안내 자원활동가 양성

- 강서구 지역 주민 중심으로 모집, 총 20명의 자원활동가가 활동 중
- 활동을 위한 총 12회의 교육과정을 수료, 월 별 심화 교육을 받으며 활동 중임

② 탐방코스 선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생태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멧꿩이 서식지와 천연기념물인 새홀리기, 황조롱이 등이 관찰됨
- 개화산 모니터링 -야생조류 1회, 식물 2회, 곤충 1회
- 개화산 앞 습지 -야생조류 1회, 양서·과충류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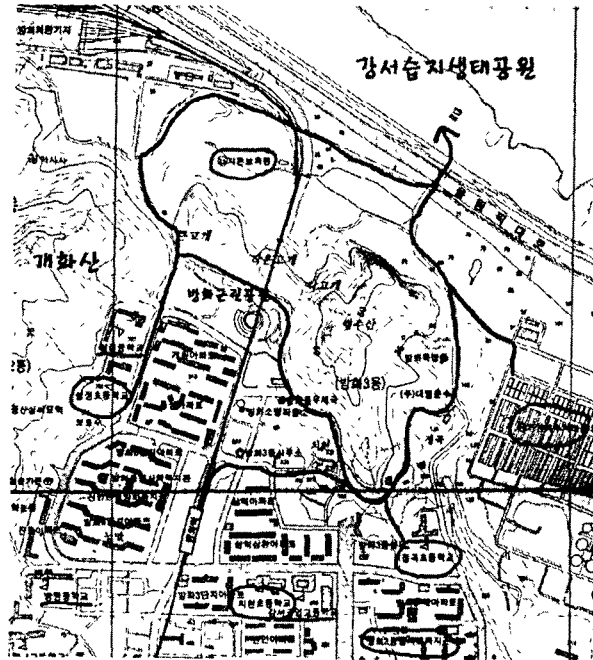
③ 기초자료 확보와 생태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반 모니터링

- 개화산 월 2회, 강서습지생태공원 주 1회

④ 강서습지생태공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야생조류가 서식, 도래하는 곳으로 정확한 자료를 내기위해 매 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1월 11월까지 새매, 황조롱이, 말뚝가리 등의 법적 보호종을 포함하여 총 60종의 조류가 조사됨.
- 양서류로는 멧꿩이, 참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류로는 잉어가 산란, 저습지에는 피라미, 송사리, 왜물개, 끄리 등이 관찰됨
- 야생조류: 매 월 1회(총 9회 실시)
- 곤충 : 5월 4일, 7월 24일, 8월 24일, 10월 5일

- 식물: 5월 11일, 10월 13일 고정구 모니터링, 7월 3일, 10월 10일
- 양서파충류 : 6월 9일, 8월 30일
- 어류 : 5월 22일, 9월 6일
- ⑤ 강서습지생태공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일반 모니터링
 - 매 주 자원활동가들이 모니터링하며 야장에 기록함
- ⑥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탐방코스 개발
 - 총 54회 1,605명 참여
 - 코스 1 : 강서습지생태공원, 정수장, 하수처리장
 - 물환경교실 총 9회 332명 참여
 - 코스 2 : 강서습지생태공원, 구암공원, 허가바위
 - 강서문화투어 총 16회 536명 참여
 - 코스 3 : 초등학교, 개화산, 강서습지생태공원
 - 학교길따라 한강까지 생태탐방 총12회 439명 참여
 - 코스 4 : 개화산, 강서습지생태공원
 - 어린이자연관찰회 총 17회 97명



- ⑦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탐방코스 교재 개발 (총 6종 개발)
 - 물은 우리의 친구
 - 강서습지생태공원, 개화산과 친구하기
 - 어린이자연관찰회(저학년용)

- 어린이자연관찰회(고학년용)
- 자연놀이
- 산에서 만나는 나뭇잎, 습지에서 만나는 풀잎
- ⑧ 생태탐방코스 안내지 제작(소책자) 2권
-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생물상 사진 자료와 한강의 역사, 서울의제21의 내용을 수록한 총 16면의 소책자
- ⑨ 강서습지생태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총 137회 3,308명 참여
- 봄생태학교 - 총 14회 303명 참여
- 여름생태학교 - 총 18회 402명
- 가을생태학교 - 총 28회 371명
- 유아생태학교 - 총 6회 285명
- 방과후생태학교 - 총 9회 178명
- 타단체 연수 - 총 8회 164명
- 탐방객을 위한 소안내판 설치
- ⑩ 강서습지생태공원 계절별 생태학교 교재 (총 20종 개발)
- 물고기와 함께 물 속 여행
- 한강에서 만나는 새
- 꼭꼭 숨은 곤충 친구들을 찾아라
- 6월의 하얀 꽃
- 꿀벌과 꽃등에
- 물을 좋아하는 작은 동물
- 거미
- 큰영경귀는 곤충박물관
- 한강의 나비
- 섬서구메뚜기
- 고마운 거미 이야기
- 뱀새 이야기
- 겨울철새 오리
- 씨앗들의 여행 1
- 씨앗들의 여행 2
- 겨울철새
- 산에서 만나는 새, 물에서 만나는 새
- 벌레들의 겨울나기-알집
- 식물들의 겨울나기-로제트
- 버드나무

- ⑪ 전문가평가회의를 통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
- ⑫ 공원을 거점으로 실시한 생물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생태현황을 파악하였고 보전 가치를 강서구청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함

다. 작은산 살리기 운동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마을주변 작은 산 기초현황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작은 산 살리기 모델 개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축적 ■ 자연환경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식생분포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략적인 현존식생도 작성, 우점종 파악 ▫ 식물분포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파악 ▫ 귀화식물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식물상 리스트 작성 ▫ 야생조류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조류 리스트 작성 ■ 인문환경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 현황도 작성 ▫ 시설물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필요성 높은 시설물 및 노후화된 시설물 현황 파악 ▫ 지역주민 의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주민 비단산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함께 하는 비단산 모니터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기초현황 자료 구축과 더불어 지역주민 교육 효과 ▫ 지역주민 참여 '비단산 동·식물·역사' 자료 모니터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 등산로 기록가판대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전시회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변에 모니터링 결과 전시회 개최 ■ 비단산 살리기 주체 양성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교육 ■ 주체 양성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모집 홍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인근 아파트단지 모집 홍보물 부착 - 은평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모집 홍보물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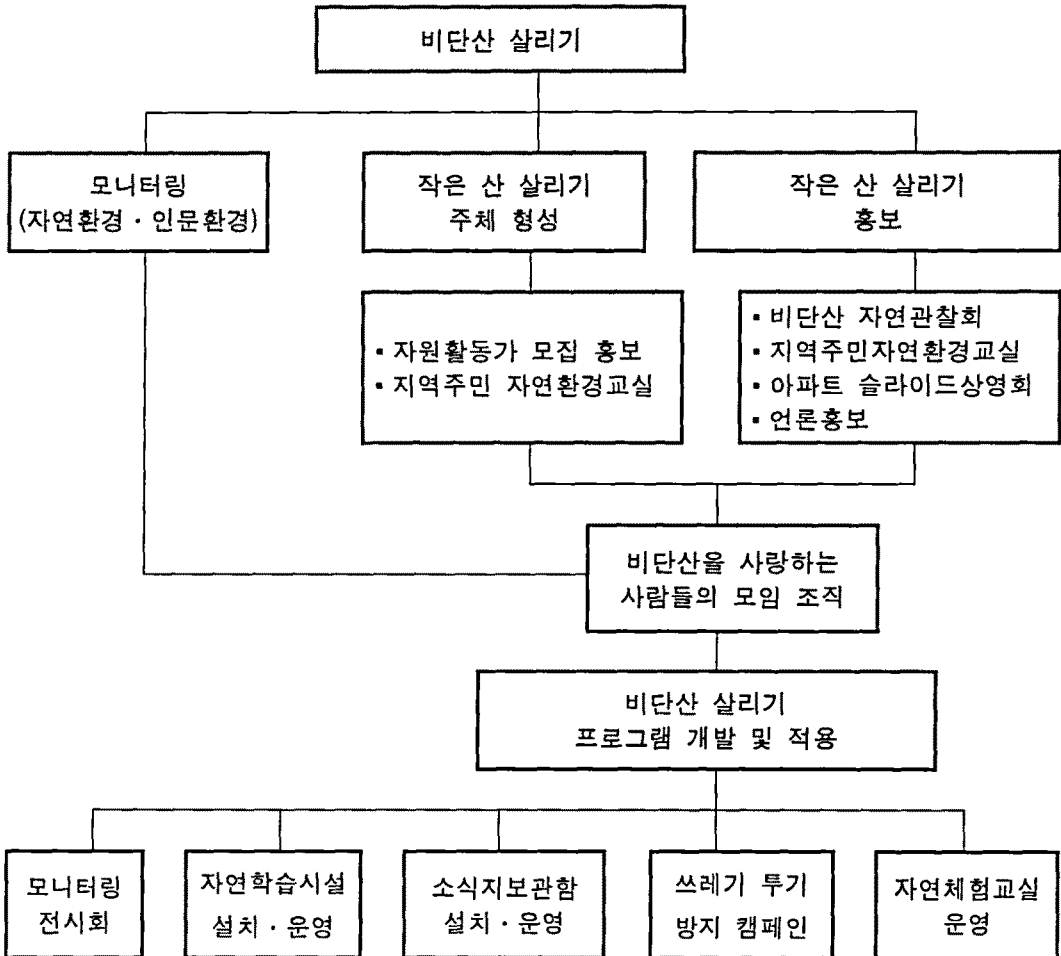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등산로 모집 홍보 현수막 설치 - 은평구 소재 사회봉사단체 모집 홍보 - 은평구 시민실천단 모집 홍보 -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모집 홍보 - 서울시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 홍보 - 은평구 지역신문 모집 홍보 - 월간지, 중앙신문 모집 홍보 등 - 은평구 반상회보 - 생태보전시민모임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활동가 모집 및 비단산 살리기 홍보를 위한 ‘한여름 밤의 슬라이드 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아파트 단지 대상 슬라이드 상영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약 100여명 참석 - 내용: 신비한 자연환경, 비단산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일 ■ 자원활동가 모집 및 비단산 살리기 홍보를 위한 ‘비단산 자연관찰회’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실시, 총 13명 참석 ◦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참여 저조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모집 및 비단산 살리기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자연환경교실’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적극 참여를 위해 지역주민자치센터 활용 ◦ 총 5강좌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 “서울을 중심으로 본 도시생태계의 이해” - 2강: “21세기 환경지킴이로서 자원활동가의 역할” - 3강: “자연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 - 4강: “외국의 자연학습장 사례로 본 비단산 활용 방안” - 5강: “비단산 살리기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 ◦ 총 8명 수강 ◦ 8명 대상으로 소모임(‘비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성 ■ “비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비사모)” 구성·운영 ■ ‘비단산 사랑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모집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 자연환경교실에 참석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가칭)비사모 소모임 구성 ◦ ‘비사모’ 회의 2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이름 ‘비단산’으로 결정 - 비단산 살리기 다양한 프로그램 논의 ◦ 비단산 살리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쓰레기 줍기 - 비단산 소식지 보관함 설치하기 등 ■ ‘비단산 살리기’ 프로그램 기획·진행 ■ 비단산 쓰레기 줍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모’ 회원 쓰레기 줍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쓰레기 줍기 행사 ◦ 모인 쓰레기는 등산로 입구에 해설판과 함께 전시 ■ 비단산 소식지 보관함 설치 및 소식지 발행·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로에 소식지 보관함 2개소 설치 ◦ '비단산 알림장'(소식지) 격주 발행 비치 ◦ 현재 5회 발행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교실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산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자연체험교실 운영 ◦ 인근 초등학교 야외학습과 연계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회 진행, 120명 참석 - 2002년 지속적 연계 추진 예정 ◦ 인근 방과후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회 진행, 15명 참석 ■ 자연해설시스템 제작·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인 활용을 위한 자연해설시설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해설판 - 나무이름판 - 초본식물이름판 - 새집달아주기 ■ 비단산 인공환경 개선 시설물 제작·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길차단 시설물 제작 - 등산로 주변 가드레일 시설물 제작 등 ■ '작은 산 살리기 운동'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취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보도국 작은 산 현황 취재 현장 안내 ◦ KBS1R 환경리포트 작은 산 현황 취재 협조 ◦ SBS R 작은 산 현황 인터뷰 ◦ 한겨레신문 작은 산 기획기사 현장 안내 및 협조 ◦ 조선일보 작은 산 기획기사 현장 안내 및 협조 ◦ 월간 힐링 소사이어티 취재 협조 ■ 지역 '작은 산 살리기 운동' 지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작은 산 살리기 운동' 자문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청 작은 산 살리기 교육 지원 ◦ 금천구청 작은 산 살리기 교육 및 자문 지원 ◦ 강북구청 작은 산 살리기 교육 지원 ◦ 강동구청 작은 산 살리기 교육 지원 ◦ 강서구청 작은 산 살리기 자문 ◦ 은평구청 작은 산 살리기 지원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작은 산 살리기 운동' 자문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성미산 살리기 운동 지원 ▫ 부천 원미산 살리기 운동 지원 ▫ 일산 고봉산 살리기 운동 지원 ▫ 강남 우면산 자원활동가 모임 지원 ▫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교육 지원 ▫ 녹번 YMCA 청소년 작은 산 살리기 프로그램 지원 <p>■ 전문가 집단 대상 '작은 산 살리기'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일시 : 2001년 1월 12일 ▫ 인원 : 약 30명 ▫ 내용 : "마을 주변 작은 산 현황 및 바람직한 복원 방안 제언" 슬라이드를 통한 현황 발표 및 토론
--	-----------------------------------------------------------------------------------------------------------------------------------------------------------------------------------------------------------------------------------------------------------------------------------------------------------------------------------------------------------------------------------------------------------------------------------------------------------------------

2) 사업추진실적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실적

□ 모니터링 (비단산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축적)

- 일시 및 장소 : 5월~11월, 주 1회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
- 참여인원 : 실무자, 단체 자원활동가
- 내 용

① 자연환경 모니터링

- 식물분포현황 조사
 - 총 159종의 식물상 리스트 작성
- 현존식생현황 파악
 - 아까시나무림, 현사시나무림 우점종. 일부지역에 소나무림, 상수리나무림 분포. 산림훼손이 심한 일부지역 억새군락 분포. 현존식생도 작성
- 귀화식물상 파악
 - 22종의 귀화식물 리스트 작성
- 야생조류상 파악
 - 14종의 야생조류 리스트 작성

② 인문환경 모니터링

- 등산로 현황, 시설물 현황 파악
 - 등산로, 샛길 분포도 작성
- 대상지 지역주민 의식 조사

③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기획·운영

-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비단산 모니터링 2회 실시
- 지역주민 참여 '비단산 동·식물·역사' 자료 모니터링 수시 실시
 - 비단산 소식지에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수시 공고
- 등산로변에 기록가판대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이 비단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

④ 모니터링 결과 전시회 기획·운영

- 등산로변에 모니터링 결과 가판대 설치
- 1주일 전시

□ 비단산 살리기 주체 양성(자원활동가 모집 교육)

- 일시 및 장소 : 3월~9월, 비단산
- 참여인원 :
- 내 용

① 다양한 홍보 시도를 통한 자원활동가 모집 시도

■ 자원활동가 3명 지원

홍보 대상	홍보 방법
은평구 시민실천단	전화, 면담, 홍보문 발송
북한산캠페인 서약자 중 은평구 소재자	홍보문 발송
단체 회원 중 은평구 소재자	홍보문 발송
지역케이블방송(미래케이블TV, 서서울케이블TV, 한국케이블TV은평방송, 한국케이블 TV마포방송)	홍보 의뢰
지역신문(은평신문, 서부신문, 도봉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북부신문, 종로신문)	홍보 의뢰
시민의 신문	홍보 의뢰
은평구청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전화, 면담, 홍보 의뢰
서울시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판 모집 공고
아나기(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홈페이지	게시판 모집 공고
생태보전시민모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모집 공고
은평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부착
녹번사회복지관, 은평사회복지관	홍보물 부착, 담당자 상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	홍보 의뢰
은평구 반사회보	홍보 의뢰
비단산 등산로 자원활동가 모집 홍보	홍보 현수막 부착
사업대상지 인근 현대아파트 부녀회	면담, 홍보물 부착

② ‘한 여름 밤의 슬라이드 쇼’

- 다양한 홍보 방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연환경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자원활동가 모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지역주민의 자연환경의식을 높이고 비단산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

- 일시: 2001년 8월 2일

- 장소: 비단산에 바로 인접한 신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 시간: 20:00~21:00시 (약 1시간)
- 참여인원: 어린이, 어른 총 100여명
- 내용: “신비한 자연, 소중한 자연”
슬라이드 100컷, 해설과 더불어 진행
- 휴가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주요 동기이었던 것으로 판단

③ ‘비단산 자연관찰회’

- ‘한 여름 밤의 슬라이드 쇼’와 같은 취지로 기획. 아이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비단산 살리기에 대한 홍보 및 자원활동가 참여 유도
- 일시: 2001년 8월 10일/ 16일/ 17일/ 23일 총 4회 실시
- 장소: 비단산
- 시간: 16:00~17:30분 (약 1시간 30분)
- 총 참여인원: 13명 (초등학생, 중학생, 어른)

④ ‘지역주민 참여 자연환경교실’

- 비단산 살리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 형성된 분위기와 연계해 지역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대상의 자연교육 강좌를 개설해 최대한의 참여를 유도해내고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
- 일시 : 2001년 8월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 총 5회 실시
- 장소 : 신사 2동 주민자치센터
- 시간 : 각 회마다 16:00~17:30분 (약 1시간 30분)
- 총 참여인원 : 9명
- 내용
 - 1강 : “서울을 중심으로 본 도시생태계의 이해”
 - 2강 : “21세기 환경지킴이로서 자원활동가의 역할”
 - 3강 : “자연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
 - 4강 : “외국의 자연학습장 사례로 본 비단산 활용 방안”
 - 5강 : “비단산 살리기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

□ ‘비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비사모)’ 구성

- 일시 및 장소 : 2001년 8월 24일, 신사 2동 주민자치센터
- 참여인원 : 실무자 포함 9명
- 내 용

① 지역주민 참여 자연환경교실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비단산 사랑회 조직

- 회의를 통해 비단산 사랑회의 이름을 ‘비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칭, 비사모)으로 정함

- 대상지 산림의 이름을 새로 짓기로 논의했다가 현재의 비단산이란 이름으로 결정
- 비단산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 아이디어 논의
- 모임의 회장을 지역주민 중 한 분 선출하였고 연락 담당은 본 사업 실무자가 담당하기로 결정
- 처음에는 느슨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모임으로 출발하기로 의견 공유

□ '비단산 살리기' 프로그램 기획·진행

① 비단산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

- 비단산은 다른 지역의 산과 비교해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깨끗한 비단산 만들기의 효과적인 방법인 쓰레기 줍기 행사를 통해 비단산 살리기 활동을 시작함
 - 일시 : 2001년 9월 18일/ 25일/ 10월 30일/ (기타, 일상적인 활동 이루어짐)
 - 장소 : 비단산
 - 인원 : 총 10인
 - 결과 : 쓰레기 분석표 작성을 통한 쓰레기 모니터 실시/
쓰레기 모니터 내용 전시(등산로 초입부에 수거된 쓰레기와 함께
해설판을 설치하고 2주 정도 전시 후 수거)

② 비단산 소식지 발행

-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그만 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단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중함을 지역주민에게 많이 알려 자연 친화적인 이용행태를 끌어내기 위해 기획
 - 일시 : 2001년 9월 18일 ~ (격주 간 발행)
 - 소식지 비치 장소 : 비단산 주등산로 초입부와 중간 부분에 소식지 보관함을 설치하고 보관함에 비치
 - 소식지 규격 : A4 양면 1장

③ 자연체험교실 운영

- 비단산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연체험교실 운영. 인근초등학교 및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진행
 - 일시 : 2001년 11월 21일/ 24일/ 27일/ 29일 총 4회 실시
 - 장소 : 비단산
 - 대상 : 인근 신사초등학교 학생, 지역 사회단체 방과후 학교 학생
 - 인원 : 강사(12명), 참가자(135명)
 - 내용 : 비단산의 동·식물 알아보기, 비단산 깨끗이 하기 등

④ 자연해설시스템 제작·설치

- 비단산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단산에 자연해설시스템 제작·설치
 - 비단산 자연생태해설판 10개소
 - 비단산에 분포하는 나무생태이름판 30개
 - 비단산에 분포하는 식물생태이름판 30개
 - 비단산 서식하는 야생조류 등지 등 제작·설치 등

3) 사업효과

- 본 사업은 2000년 작은 산 기초현황 조사 활동의 연속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역 작은 산 살리기 사례 활동으로 의미가 있음
- 본 사업에서 진행한 활동 프로그램은 각 지역 작은 산 살리기의 세부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함
- 본 사업 진행 중 언론 취재의 적극적 협조로 작은 산 살리기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비단산 살리기’ 프로그램 중 ‘자연체험교실’ 운영

(1) 사업개요

- 작은 산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체육시설물에 의한 산의 훼손임. 이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육활동 위주로 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 특히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산림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과 야외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감에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인근 학교와 연계해 작은 산의 자연체험공간으로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배경 하에 지역 학교와 연계한 비단산 자연체험교실을 기획·운영하였음

(2) 추진결과

- 사업 초기부터 비단산 인근 신사초등학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다가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11월에 관심을 표명하여 비단산에서 3차례 자연교실을 운영하였음
- 한 학급 당 약 40여명에 이르는 학생을 위해 강사 3명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학습 내용은 비단산을 통해 자연감수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함
- 본 자연체험교실은 내년 봄학기 개강과 더불어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비단산 살리기 홍보를 위한 ‘한 여름 밤의 슬라이드 쇼’

(1) 사업개요

- 본 사업의 중점 사업인 자원활동가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역주민의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비단산 살리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기 위해 기획
- 비단산에 바로 인접해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름밤의 슬라이드 상영회’를 개최함
- 어린이 놀이터에 대형 슬라이드막을 설치하고 신비로운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 비단산에 대한 이야기, 자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약 1시간 정도 진행함

(2) 추진결과

- 개최 시기가 여름 휴가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어른 포함 10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판단함
- 추후 활동에서 보여지는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이는 단지 문화의 불모지라는 아파트의 특성에서 이루어진 성공이라고 보여짐
- 앞으로 비단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비단산에 바로 인접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향후계획

-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보자면 본 사업은 한 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올해 1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절차와 시행착오, 그리고 개발 적용된 프로그램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작은 산 살리기의 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높다고 판단됨
- 본 사업에서 이루어진 몇 프로그램은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창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7. 지역사회 환경교육 정착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필요

<표 3>장기적 지역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개념도

